

“중간고사도 뚫렸다”...허술한 보안 ‘도마위’

대동고 2명, 1학기 16과목 유출
노트북 보안망 뚫는데 ‘20분’
광주교육청, 68개교 특별감사
“수사 결과후 재시험 등 결정”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광주 대동고 고교생 2명이 동일한 수법으로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가 수준으로 교사의 노트북을 손쉽게 해킹하고 제 것처럼 교무실을 드나드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 과정에서 ‘학생들의 일탈’이 학교 측의 허술한 보안 문제로 허무하게 뚫린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교직원들의 안전한 보안 의식과 학교 측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동고 시험지·답안지 유출사건과 관련, 업무방해·건조물 침입 혐의로 대동고 2학년 생 A·B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피의자 입건 후 이틀간 진행된 조사를 통해 2학년 1학기 내신시험 문답 유출 사고가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연이어 발생한 정황을 확인했다.

입건된 학생들은 중간고사 때 7과목, 기말고사 때 9과목 등 1학기 동안 모두 16개 과목의 시

험 문답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과목은 중간고사 각각 5과목, 기말고사 때 7과목씩이었다.

학생들은 중간·기말고사에서 각자 8과목에 응시했지만, 이들의 선택 과목은 달랐다. 유일하게 문답을 유출하지 못한 과목은 영어였다.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범행 모의를 시작했고, 4월에 치러진 중간고사 직전 첫 번째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의자 가운데 ‘해커’ 역할을 했던 학생이 주도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두 학생은 기말고사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중간고사 시험 문답을 유출해냈고, 본관 4층과 2층, 별관 2층에 위치한 교무실을 순차적으로 침입했다.

출제에 쓰인 노트북(랩톱) 컴퓨터를 해킹하

고 악성 코드를 심는 시간은 대당 20분가량 소요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생들은 또 교사들이 모두 퇴근하고 경비원만 남은 야간 시간대를 노려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중간고사 이후 교무 공간이 본관에서 별관으로 바뀐 교사의 자리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하게 범행했다.

악성 코드 설치와 출제 정보 회수를 위해 학생들이 여러 차례 침입한 교무실마다 방범·경비설비가 작동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조차 없을 만큼 학교 측의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학생 2명은 조만간 대동고에서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한 퇴학, 전학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

인다.

재시험 여부도 학교 측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선불리 교육청 측에서 징계와 재시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 측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학생들의 0점 처리와 재시험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평가(시험) 보안관리를 강화, 지역 6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특별 점검에 나선다. 장학사로 구성된 학생평가 전담반을 가동해 출제-인쇄-시행-채점 단계별 보안 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보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매뉴얼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했다. ▲교사 연구실 출입문·창문 시건장치 강화 및 관리 ▲퇴근 시 노트북 등 캐비닛 보관 및 시건장치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최환준·김혜린 기자



와~ 방학이다

27일 오전 여름방학에 들어간 광주 삼각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생활통지표를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영장 재신청

경찰이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군수는 전 현직공무원 20여명과 함께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피의자 중 이 전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전·현직 공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이 전 군수 측이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최환준 기자

“한일관계 개선 근로정신대 이용 말라”

시민단체 “박 장관 발언 외교 참사”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박진 외교부장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일 관계 회복에 근로정신대 문제를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오후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박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간 이뤄진 방일 과정에서 하야시 일본 외상, 기시다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해결방안은 빛을 갉아야 할 사람이 내는 것이지, 왜 받아야 할 사람이 내야 하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이를 자국

국내 정치에 활용해 온 일본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서둘러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박 장관의 (방일 당시)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외교적 참사다. 과연 이게 피해국가 외교 수장으로서 할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범일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현금화가 실제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며 “판결을 4년 동안 거부하는 것은 관철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은 한일관계가 파탄날 일인가”라고 규탄했다.

/임재민 기자

광주·전남 배전노동자들 파업 종료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단체행동 50일째에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지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임금 6% 인상 등을 포함한 노사 합정합의안을 찬성 70.7%로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총파업 종료 집회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산, 28일째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배전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근절, 노동조건 개선, 하계 유급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 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원청인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한전 본사 인근에서 고공농성을, 지역본부 시설 일부를 점거하기도 했다.

/임재민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1) 감평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tr><td>광주</td><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tr><tr><td>전남</td><td>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tr><tr><td>시외</td><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tr></table>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								